26일 Market Index
코스피 4711.21 (+13.70)
코스닥 655.71 (+5.07)
금리(국고채 3년) 3.622 (+0.039)
환율(원·달러) 1342.7 (-0.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

'반도체 호조' 내년 성장률 4.1%
한은, 기준금리 3.25%로 인상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인상 찬성
올해·내년 근원물가 2.6% 전망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세와 지속되는 물가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올렸다.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2.6%로 높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2021년(4.7%)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4.1%로 대폭 올려잡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했고, 황건일·이수형 위원은 연 3.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7월과 8월 각각 0.25%p 인상한 뒤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7월 이후 누적 인상 폭은 0.75%p가 됐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에 소득 여건 개선과 재정지출 확대가 더해져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 4.1%로 8월보다 각각 0.6%p, 1.2%p 높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 2.5%보다 높은 2.6%로 전망했다. 비용 상승의 전이가 이어지고 성장세 확대로 수요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안정 위험도 남아 있다고 봤다.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원 늘었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은 연 3.25%에 6개, 3.50%에 8개, 3.75%에 7개의 점이 제시됐다. 중간값은 3.50%로, 현 금리보다 높은 점은 21개 중 15개다. 각 위원이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해 3점씩 제시한 결과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25%에서 1.50%로 올려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장관 후보자 4인, 본격 청문회 준비

강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웅순 외교부장관 후보자, 한준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B2B 통합조직, DX직속 편제

내달 1일 DX 조직개편·후속 인사
통합조직 센터장 박찬우 부사장
주택·빌딩 중심 통합솔루션 추진

삼성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통합조직을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속으로 재편하고 사업부 내 유사 조직을 축소하는 등 완제품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일 DX부문의 조직개편 및 후속 보직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20일 사장단 인사와 24일 정기 임원인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미래사업 육성과 기존 사업의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B2B통합오퍼링센터를 DX부문 직속으로 편제한다. 센터장은 박찬우 부사장이 맡으며 주택·빌딩을 중심으로 통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해 B2B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에는 사업부장 직속으로 통합오퍼레이션센터를 신설하고 최용훈 부사장을 센터장으로 배치한다. 이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부 내 유사 조직을 축소하고 일부 담당 및 랩(Lab) 단위 조직을 폐지한다.

판매·데이터 조직의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박순철 부사장이 빅데이터센터와 소비자 직접 판매(D2C)센터를 함께 총괄하며 D2C센터 산하에는 인공지능(AI) 전환(AX)기획그룹을 신설한다.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조직도 강화한다. 기존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Corporate Development) 그룹을 팀 단위로 격상해 DX부문 경영지원담당 직속으로 두고 장세명 부사장에게 팀장을 맡긴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社 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metro

對美 관세 15% 일단 유지… 25% 인상 여지

美 압박 수단 '25%' 활용할 듯
"15% 유지땐 선방 이상의 선방"

미국이 한국을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 제시한 기본 관세율은 한미 관세합의 수준인 15%다. 미측은 다만 향후 협의나 합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미국이 최종 관세 결정에서도 한미 관세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15%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 가운데 멕시코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경제권의 행위와 정책,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USTR이 한국에 제안한 기본 관세율은 15%다. 일본과 EU, 대만, 스위스에도 같은 수준을 제시했으며, 중국은 20%다.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기존 301조 관세 등을 합산해 총 15% 수준이 되도록 제안한 것이다.

다만 USTR은 향후 협의 결과나 약속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일본은 20%, EU는 20%, 대만은 25%, 중국은 4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시된 세율은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으로, 확정된 관세나 즉각적인 부과 조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25% 상향 가능성을 당장 관세를 올리겠다는 신호라기보다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25% 상향 가능성이 제시된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무역수지가 감안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만 역시 기본 관세율은 15%지만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2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무역흑자 증가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대미무역흑자 급증을 언급하면서 "최종 15% 수준 관세가 유지된다면 선방 이상의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대미투자가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맞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日입국 거부' 조국, 다음 달 7일 독도 찾는다… 세 번째 방문 /사진 뉴시스

▲국방부, 北김정은 핵시설 현지지도에 "핵개발 정당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혁신당, 국힘에 '조희대 탄핵 반대 연대' 제안… "당원 아닌 범국민 집회로 가져가야"

▲"하이에나 떼들" 최민희, 경찰 수사 본격화…고소·고발인 잇따라 조사

▲만13세에 성적메시지 179회·성착취물 23개… 공무원 실형

▲경찰, '리트만점' 이진우 주거지 압수수색…'수능시험지 보관' 영훈고도